

남성가구주의 음주가 배우자 음주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 폭력의 매개효과-

윤 명 숙*

(전북대학교)

조 혜 정**

(신경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 남성가구주의 문제음주가 배우자 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가정폭력이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의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만19세-65세 미만의 성인기에 해당하는 남성가구주와 그 배우자에 대한 자료를 추출하여 총 3,284가구를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남성가구주의 문제음주수준이 증가할수록 배우자의 문제음주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성가구주의 문제음주수준이 증가할수록 배우자 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가구주의 문제음주는 배우자폭력을 매개로 여성배우자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가구주의 문제음주수준이 증가할수록 배우자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였고 이는 여성배우자의 문제음주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음주와 가정폭력의 이중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특히 배우자폭력 피해자들이 나타내는 음주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문제음주, 배우자 폭력, 피해자의 문제음주, 복지패널

*주저자

**교신저자

1. 서론

우리 사회의 음주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들의 문제음주자 비율은 24.3%, 알코올남용자 7.3%, 알코올의존율 7.3%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 현재 우리나라 알코올중독자의 수는 약 220만 명, 문제음주자는 최대 600만 명까지 추정하고 있으며, 음주는 신체적, 정신적, 가족적, 사회경제적, 영적 영향을 미치는 다면적인 문제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음주관련 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자살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윤명수, 2010). 특히 음주로 인한 여러 문제들 중 음주와 폭력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이 지난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1980년대부터 알코올 또는 마약남용과 가정폭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Stewart, Golden and Schumacher, 2003; Hirschel, Hutchison, and Shaw, 2010). 음주관련 22개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연구결과(Stith, Smith, Penn, Ward, and Tritt, 2004), 음주와 폭력 간 관계에서 음주는 가정폭력의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주는 가정폭력의 발생빈도와 심각성을 증가시키며(Tasta and Quigley, 2003; Galvani, 2004; Zhan, Shaboltas, Skochilov, Kozlov, Krasnoselskikh, and Abdala, 2011),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들의 1/4은 동시에 약물남용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cott and Easton, 2010). Schumacher 외(2003)의 연구에 따르면 약물남용치료를 받는 남성들의 50% 정도가 지난 12개월 안에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Fals-Stewart(2003)에 따르면, 남성이 술을 마신 날 파트너에 대한 신체적 공격성을 행사할 가능성이 술을 마시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술 마신 날이 많을수록 심각한 폭력 발생가능성이 11배나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파트너 폭력의 60%가 남성들이 술을 마신 2시간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알코올이나 약물 문제는 가정폭력문제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가해자의 음주나 폭음 및 높은 음주 빈도는 가정폭력 발생의 빈도와 손상의 심각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Leonard, 2001; Fals-Stewart, 2003; Forrester and Harwin, 2006; Thompson and Kingree, 2006). 그러나 그동안 가정폭력 및 중독 전문가들이 간과하다가 최근 들어 주목하기 시작한 주요 특성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음주문제 발생이다. 몇몇 연구들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여성의 음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Rogers, McGee, Vann, Thompson, and Williams, 2003), 일부 피해여성들은 폭력에 따른 외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자가 치료목적으로 음주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lark and Foy, 2000; Lipsky, Caetano, Field, and Larkin, 2005).

국내의 경우 음주와 폭력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음주와 폭력행동의 동시발생 가해자 및 피해자 연구(조미숙, 2002; 장수미, 2007; 조성민, 2009; 김주현 장수미, 2011), 가정폭력행위자의 문제음주 문제에 대한 집단개입프로그램 효과(유채영, 2002), 음주상태에 따른 폭력범죄(전영실, 2004), 음주와 심리적 특성, 배우자 폭력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권태연 강상경, 2007) 등이다. 이러한 국내외 연구들을 종합하면 음주가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음주가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음주문제에는 주목하고 있지 못하다. 그동안 가정폭력이 피해여성배우자의 우울, 스트레스, 심인성 질환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Carlson, McNutt, Choi, and Rose, 2002; Carbone-Lopez, Kruttschnitt, and Macmillan, 2006)은 이루어져 온 반면에,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배우자들의 음주실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음주문제가 가해자의 음주문제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Maffi and Zumbrunn, 2003)에서 간과되고 있으나, 음주문제를 가진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비음주자인 피해여성들에 비해 자신을 탓하고 비하하며 우울한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lark and Foy, 2000; Harrison and Willis, 2000).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음주문제를 살펴본 국내연구는 가정폭력피해 여성의 음주실태와 음주문제를 살펴본 연구(장수미, 2008; 김재엽 이지현 송향주 한샘, 2010)들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음주문제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는 학문적 의의가 높으나, 가해자의 음주문제가 피해여성의 음주에 미치는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고찰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 가정폭력이 가해자의 문제음주와 피해자의 음주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유사연구는 청소년자녀들을 대상으로 살펴본 윤명숙과 조혜정(2009)의 연구에 불과하다. 음주와 가정폭력이 동시에 결합한 문제양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가정폭력과 문제음주의 이중문제가 발생할 때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음주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음주와 폭력 이중문제 피해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 문제음주와 가정폭력, 피해자 음주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경험적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남성가구주의 음주문제가 가정폭력을 매개로 피해여성의 음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이 없는 상황에서,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성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일반 인구를 대표하는 복지패널을 이용하여 남성가구주의 문제음주가 가정폭력을 매개로 피해배우자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가해자의 음주문제와 가정폭력의 정도를 파악하고, 배우자의 음주와 가정폭력이중문제에 노출된 피해자들의 음주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의 문제음주가 배우자의 음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남편의 문제음주와 배우자 음주간의 관계를 가정폭력이 매개하는가?

2. 선행연구검토

1) 음주와 폭력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남녀의 부부 폭력률은 53.8%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폭력 발생률은 42.8%, 성학대 발생률 10.4%, 신체적 폭력의 발생률은 16.6%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1). 결혼한 가정폭력 남편들은 결혼하지 않은 폭력가해 남성들에 비해 음주빈도와 음주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력의 강도 역시 음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mith, 2000; Stith et al., 2004). 알코올남용은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치료프로그램 후 가정폭력을 다시 행사하는 것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owen, Gilchrist and Beech, 2005; Lin et al., 2009). Zhan 외의 연구(2011)에 따르면, 알코올남용 대상자들의 친밀한 파트너 폭력은 알코올남용이 아닌 대상자들에 비해 발생 가능성이 3.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unradi(2009)의 연구에서는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알코올중독증상들이 일반 가구주 집단들의 배우자 폭력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폭력남편들과 가정폭력범죄 처벌을 받은 남편들, 사회에 노출되지 않는 지역 사회 폭력 남편들 세 집단의 특성을 비교한 연구(장희숙, 2006)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 처벌을 받은 남편들은 지역사회 폭력남편들에 비해 알코올문제와 폭력을 허용하는 태도를 더 많이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문제음주와 데이트 폭력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양난미, 2009)결과, 대학생들의 문제음주 수준이 높을수록 특성분노와 데이트 폭력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수사재판기록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음주상태를 살펴본 전영실(2004)의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낮을수록, 동종범죄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 범행당시 음주상태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상태에서의 폭력은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폭력에 비해 우발적인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상담기관과 알코올치료기관 남성 클라이언트의 폭력행동 및 음주특성을 연구한 결과(장수미, 2007), 가정폭력기관 남성클라이언트의 84.5%가 문제음주자로 나타났고, 가정폭력기관과 알코올기관 남성클라이언트의 폭력행동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문제는 폭력의 여러 유형 중 언어폭력에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가정폭력상담기관의 클라이언트일수록, 반사회적 성격성향이 높을수록 폭력행동과 음주문제의 동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조미숙의 연구(2002)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의 51.4%가 알코올중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남편의 알코올사용이 아내구타의 정도를 심화시킨다고 제시하고 있다. 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한 권태연과 강상경의 연구(2007)에 따르면, 음주빈도, 문제음주, 자아존중감, 무력감은 배우자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제음주는 무력감을 매개로 하여 배우자 폭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이 음주와 가정폭력의 관계를 유의미한 인과관계로 제시하고 있다.

2) 가해자 음주, 폭력 및 피해자 음주

가정폭력 및 음주문제는 가족구성원 전체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가해자의 음주문제와 가정폭력을 같이 경험한 피해자들의 음주문제 미치는 영향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매우 미흡하다. 폭력피해자의 음주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접근은 배우자폭력의 피해로 인한 감정과 문제들을 대처하기 위하여 음주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Rogers 외(2003)의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심각성과 폭력피해여성의 음주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남성들과 비교하여 여성들이 폭력의 외상을 대처하고 자신을 위안하기 위하여 더 많이 알코올이나 약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도시 응급실을 이용한 가정폭력 피해자 연구(Lipsky et al., 2005)에 따르면, 피해여성들은 가정폭력을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음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력 피해여성들이 폭력피해의 이유로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 외상을 대처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lark and Foy, 2000; Harrison and Willis, 2000; Lipsky et al., 2005). 장수미(2008)의 연구에서 145명의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의 음주상태를 살펴본 결과,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26.2%가 문제음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남편의 음주문제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엽 외(2010)의 아내폭력 피해여성들의 위험음주 실태와 영향요인 연구결과, 124명의 피해여성들 중 15.7%가 위험음주자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수준이 낮고, 폭력발생의 책임을 자신의 탓으로 인식하는 여성일수록, 과도한 음주량으로 위험음주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과 음주문제가 동시에 발생한 피해여성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김주현 장수미, 2011)결과에 따르면, 피해여성들은 '음주의 악순환에 갇힘' 경험 속에서 극단적인 음주폭력의 희생자로 수동적 대처를 하고, 수발자 역할을 하며 '고사되어가는' 경험을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두 번째 입장은 피해자의 음주행위 자체가 폭력을 유발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폭력 피해자의 음주문제가 폭력피해 가능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Caetano, Schafer, Clark, Cunradi, and Raspberry, 2000). 남편의 음주유형은 부인의 음주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Leonard and Das Eiden, 1999), 지난 1년 동안 DSM-IV 진단 기준에 의한 알코올남용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남성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unradi, 2009).

가정폭력의 피해 청소년 자녀들의 음주행위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문제음주가 가족기능이나 부모-자녀 관계의질, 학대경험, 부모양육 태도 등을 통해 청소년 자녀의 음주행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Leonard, 2001; Latendresse, Rose, Viken, Pulkkinen, Kaprio, and Dick, 2008). 윤명숙과 조혜정의 연구(2009)결과, 부모의 문제음주가 자녀의 음주행위로 연결되는데 있어 학대경험은 자녀의 음주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 수준이 증가할수록 부모의 문제음주가 자녀의 폭음횟수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음주가 자녀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학대경험이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가정폭력이 피해 아동의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와 알코올중독 및 약물중독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이 있다(Clark, De Bellis, Lynch, Cornelius, and Martin, 2003; Forrester and Harwin, 2006). 유럽의 독일, 폴란드, 스페인, 영국, 말타 에서 알코올남용과 가정폭력이 공존하는 가정에서 살고 있는 12-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1/3 정도가 정신과적 문제를 경험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았으며, 청소년들의 약 60%이상(주로 14세 이상)이 지난 6개월 동안 음주한 것으로 나타났다(Velleman, Templeton, Reuber, Klein, and Moesgen, 2008). 특히 알코올중독가정에서 가정폭력 피해경험을 한 자녀들의 정신건강은 심각하여, 아동기 학대를 경험한 자녀들은 청소년기에 음주문제, 우울, 낮은 자

이존증감, 품행장애 등을 경험하고 성인기에도 알코올중독, 문제음주현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Widom and White, 1997; Ritter, Stewart, Bernet, Coe, and Brown, 2002; Farrell and Sullivan, 2004). 이외에도 청소년들의 폭력경험과 음주문제를 살펴본 연구(윤명숙 조혜정, 2008)에서,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을 중복경험한 집단과 가정폭력을 경험한 집단의 청소년의 음주경험과 음주량이 비교집단들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경험의 유형 자체는 음주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학교폭력 피해횟수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음주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기 폭력 피해와 문제음주의 관계를 살펴본 Kaukinen(2002)의 연구결과, 청소년 폭력 피해자들은 폭음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음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부정적인 재정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폭음이 배우자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Caetano, Ramisetty-Mikler, Caetano, and Harris, 2007)도 있어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남성가구주의 음주 및 폭력이 배우자의 음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여성피해자의 문제음주 관련 요인

남성들의 음주율이 조금 감소하는 추세와 다르게 우리나라 여성의 음주율은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만 19세 이상 여성의 문제음주율은 12.8%, 알코올남용 여성들은 2.0%, 알코올의존 여성들은 2.2%로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여성들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연구들에 따르면 남성들은 자신들의 공격성, 통제, 폭력의 목적으로 음주하는데 반해, 여성들은 공격이나 폭력피해로 인한 감정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음주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Testa, Livingston, and Leonard, 2003; Graham, Plant, and Plant, 2004). Redgrave 외의 연구(2003)결과, 아동기나 발달단계에서 성학대나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여성이 음주문제를 가지게 될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chuckit 외의 연구(1998)에 의하면,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은 남성알코올중독자들에 비해 더 우울하고 수동적이며,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숙과 이효영(2010)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남녀 성인들의 폭음 및 문제음주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여성들의 경우 연령이 어릴수록, 미혼,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스트레스 및 우울 등의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는 경우에 폭음 및 문제음주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초반의 남녀 성인들은 그 연령대 성인들에 비하여 문제음주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더 어린 연령일수록, 친밀한 파트너가 음주문제를 가진 경우에 음주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Wilsnack, Wilsnack, and Hiller-Stumhofel, 1994). 음주의 동기모델(motivation model)을 활용한 조사에서(Leonard and Muder, 2004), 남편의 음주는 부인의 대인관계의존, 친구들의 수, 알코올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의 조절효과 영향 하에 부인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대학생들의 문제음주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정슬기, 2007)에 따르면, 남녀 대학생 모두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또래음주비율, 과거 스트레스유발경험, 음주기대로 나타났으며, 여자대학생의 문제음주에는 남자대학생들과 달리 알코올가족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우울이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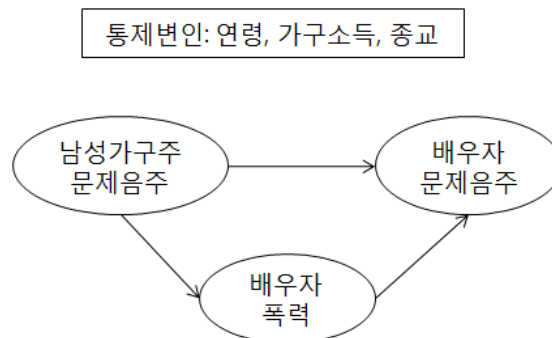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onard 와 Muder의 연구(2003)에 따르면 여성들은 남편이나 친밀한 파트너, 친구 등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받아 음주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Martino 외의 중단연구(2005)에 의하면, 가정폭력피해경험은 여성의 폭음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폭력을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미(2008)의 연구에서는 음주문제가 있는 여성의 경우 종교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교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음주문제에는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허만세와 손지아(2011)는 중년여성의 4년간의 음주변화를 살펴본 결과 빈곤가구에 속해있는 중년여성의 문제음주가 비빈곤가구에 속한 중년여성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구소득은 여성들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남편의 음주는 여성의 음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러한 영향을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성음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 종교, 가구소득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가구소득, 배우자의 연령, 배우자의 종교를 통제한 상태에서 성인 남성가구주의 문제음주가 폭력을 매개로 배우자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으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위 연구모형에 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남성의 문제음주는 배우자 문제음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남성의 문제음주는 배우자폭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남성의 문제음주는 배우자폭력을 매개로 배우자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자료수집방법 및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의 2006년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자료는 서울을 비롯한 7개 광역시와 제주도를 비롯한 9개도의 가구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는 전국적인 대표성을 가진 종단자료이다. 2005년도 인구총주택조사의 90%자료로부터 2006년 국민실태조사가구 30,000가구를 2단계 층화집락추출에 의해 추출하였고, 이들 가구 중 소득계 층별로 저소득층가구와 일반가구를 각각 3,500가구씩을 추출하여 총 7,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최종 7,072가구, 14,469명의 가구원이 조사되었다. 표본 배분은 복지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동일한 비율로 표본이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차년도 패널자료 중 만 19세 이상 65세미만의 성인기에 해당되는 가구를 선별하였고, 대상 기혼가정 중 남성가구주와 여성배우자가 모두 조사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남성가구주와 그 배우자에 대한 자료를 추출하여 총 3,284가구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문제음주

남성가구주와 여성배우자의 문제음주를 측정하는 변수는 1차년도 복지패널 자료 중 음주에 대한 인식(p0105_5 ~ p0105_8)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CAGE(Cutting, Annoyance by criticism, Guilty feeling, Eye-opener)로서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예(1), 아니오(0)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최소 0점에서 최대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음주자일 가능성이 크며, 점수총합이 2점 이상일 경우 문제음주자로 선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4문항의 합을 측정변수로 구성하여 구조모형을 투입하였으며, 남성가구주의 CAGE 신뢰도는 Cronbach $\alpha=.70$, 여성배우자의 CAGE 신뢰도는 Cronbach $\alpha=.60$ 으로 나타났다. 여성배우자의 문제음주의 경우 왜도 및 첨도를 통해 정규성을 살펴본 결과 기준 값(왜도는 절대값 3, 첨도는 절대값 1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FIML추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다변량 정규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성배우자의 문제음주를 Log값으로 전환하여 구조방정식에 투입하였다.

(2) 배우자 폭력

배우자 폭력은 1차년도 복지패널 자료 중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에게 폭력을 경험한 내용(p0105_30 ~ p0105_42)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CTS 2(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로서 13문항을 5점 척도(0=전혀없다에서 4=11번 이상)로 측정된 것이다. 배우자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축소 보고할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남성가구주가 응답한 자료가 아닌 여성배우자가 응답한 '배우자가 자신에게 행한 배우자폭력의 부분'을 사용하였다. CTS 2는 정신적 폭력, 경미한 신체폭력, 심한 신체폭력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정신적 폭력인 3문항과 신체적 폭력 10문항이 하위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배우자폭력의 경우 정신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의 측정변수로 구성된 잠재요인으로 구조모형에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배우자폭력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3$ 로 나타났다. 배우자폭력의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본 결과 기준값(왜도는 절대값 3, 첨도는 절대값 1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FIML 추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다변량 정규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배우자폭력의 하위요인을 각각 Log값으로 전환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에 투입하였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로 가구소득, 배우자연령, 배우자 종교유무를 투입하였다. 가구소득의 경우 한국복지패널에 서 균등화 소득을 중위소득 60%에 기준하여 일반가구(0)와 저소득가구(1)로 분류된 변수를 사용하였다. 배우자 연령은 비율변수로 측정하였으며, 배우자의 종교유무는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18.0 for Window와 Amo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연구 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자료의 정규성 또는 이상치를 검토하였다. 둘째, 척도들의 구성타당도를 밝히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변인들 간의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와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가구소득별로 분류할 경우 일반가구는 2,544(77.5%), 저소득가구는 740(22.5%)로 나타났다. 여성배우자의 연령은 30-39세가 1,154명(35.1%)으로 가장 많았고 40-49세가 1,067명(32.5%), 50-59세가 759명(23.1%), 20-29세가 193명(5.9%), 60-64세가 111명(3.4%)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배우자의 종교유무의 경우 있는 경우가 1,816명(55.5%), 없는 경우가 1,456명(44.5%)로 나타났다. CAGE 2점 이상을 문제음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남성가구주의 경우 정상음주군은 1,871명(76.3%), 문제음주군은 580명(23.7%)로 나타났으며 평균 .80

점, 표준편차 1.06으로 나타났다. 여성배우자의 경우 정상음주군은 1,121명(96.5%), 문제음주군은 41명(3.5%)로 나타났으며, 여성배우자의 CAGE(log)의 평균은 -.2695, 표준편차 .930으로 나타났다. 배우자폭력(log)의 평균은 -1.975, 표준편차는 1.575로 나타났다. 주요변수들의 정규성을 왜도와 첨도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왜도는 절대값 3미만, 첨도는 10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변수명	구분	빈도	백분율	합계		
가구소득	일반가구	2,544	77.5	3,284(100.0)		
	저소득가구	740	22.5			
여성배우자 연령구분	20-29세	193	5.9	3,284(100.0)		
	30-39세	1,154	35.1			
	40-49세	1,067	32.5			
	50-59세	759	23.1			
	60-64세	111	3.4			
여성배우자 종교	유	1,816	55.5	3,272(100.0)		
	무	1,456	44.5			
남성가구주 문제음주	정상음주	1,871	76.3	2,451(100.0)		
	문제음주	580	23.7			
여성배우자 문제음주	정상음주	1,121	96.5	1,162(100.0)		
	문제음주	41	3.5			
변수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연령	21	64	42.94	9.24	.207	-.878
남성가구주 문제음주	0	4	.80	1.06	1.133	.198
여성배우자 문제음주 (log값)	-3.00	.48	-.2695	.930	2.742	5.574
배우자폭력 (log값)	-3.00	1.68	-1.975	1.575	.919	-1.083

2) 주요변수별 상관관계

연구모형 분석에 앞서 주요변수들에 대한 다중공선성을 검토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2>),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0.6이상인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 남성가구주의 문제음주, 배우자폭력, 여성배우자의 문제음주는 각 변수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가구소득과 관련해서는 저소득 가구에 속하는 경우 일반가구에 비해 남성가구주의 문제음주 및 배우자폭력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표 2> 상관관계

주요 변수	1	2	3	4	5	6
1. 가구소득	1					
2. 여성배우자연령	.155***	1				
3. 여성배우종교	.044*	.181***	1			
4. 남성가구주 문제음주	.046*	.018	.000	1		
5. 배우자 폭력	.132***	.031	-.001	.161***	1	
6. 여성배우자 문제음주	-.021	-.056	-.023	.100**	.085**	1

*p<.05 **p<.01 ***p<.001

1. 가구소득 더미 : 1=저소득가구, 0=일반가구 2. 종교 더미 : 1=유 0=무

3) 측정모형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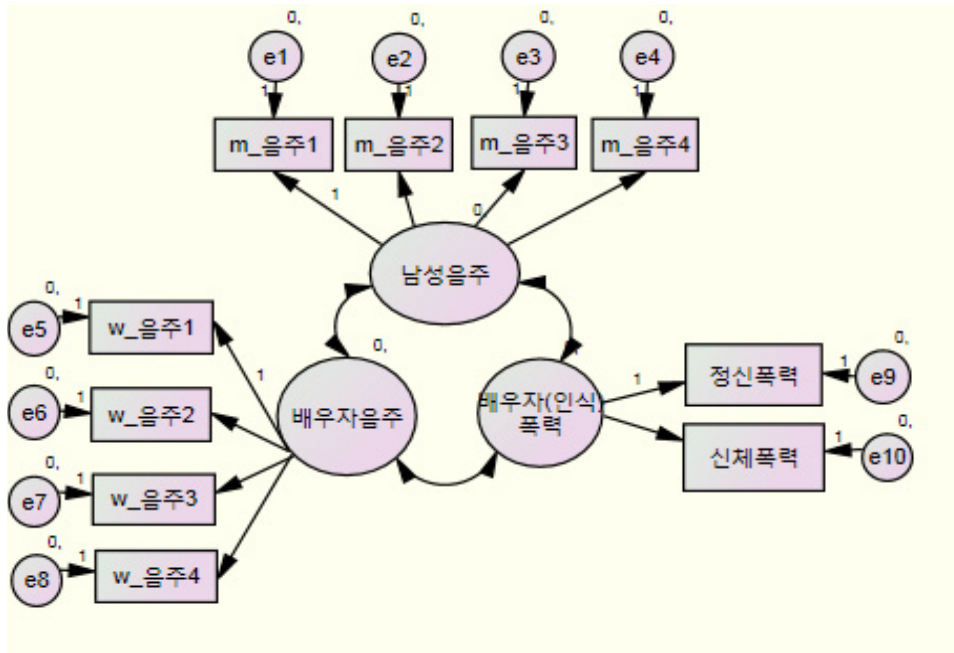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측정변수로 사용된 문제음주를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 잠재변수로 사용한 우울, 배우자폭력의 각 지표들이 이론적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 측정모형을 분석하기 전 먼저 연구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수인 폭력 13문항은 탐색적 요인분석 후 2개의 관측변수로 분류되었으며,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폭력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표준화계수가 .505~.898로 모두 유의하며, $\chi^2=7464.953(df=64)$, $p=.000$, TLI=.799, CFI=.793, RMSEA=.097로 나타나 χ^2 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형적합도는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측정모형(<그림 2>)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57.979(df=32)$, $p=.003$, TLI=.985, CFI=.991, RMSEA=.016로 나타나 χ^2 를 제외하고는 좋은 적합도 수준을 보였다. 또한 잠재요인을 측정하는 변수들의 요인 부하량이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집단의 잠재변수들 간 공분산 추정치를 살펴본 결과 남성가구주의 문제음주와 여성배우자의 문제음주 간 상관관계는 .008($p<.01$), 남성가구주의 문제음주와 배우자폭력 간 상관관계는 .082($p<.001$), 배우자폭력과 여성배우자의 문제음주 간 상관관계는 .030($p<.001$)로 나타나 모두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 변수	측정 변수	Estimate		S.E	C.R
		B	β		
남성가구주 문제음주	m음주1	1	.665		
	m음주2	.726***	.642	.031	23.494
	m음주3	.919***	.767	.039	23.696
	m음주4	.127***	.238	.013	9.981
배우자폭력	정신폭력	1	.727		

	신체폭력	.402***	.606	.054	7.401
여성배우자 문제음주	w_음주1	1	.663		
	w_음주2	.499***	.538	.038	13.223
	w_음주3	.726***	.742	.055	13.181
	w_음주4	.031***	.138	.008	3.911



$\chi^2=57.979(df=32)$, $p=.003$, TLI=.985, CFI=.991, RMSEA=.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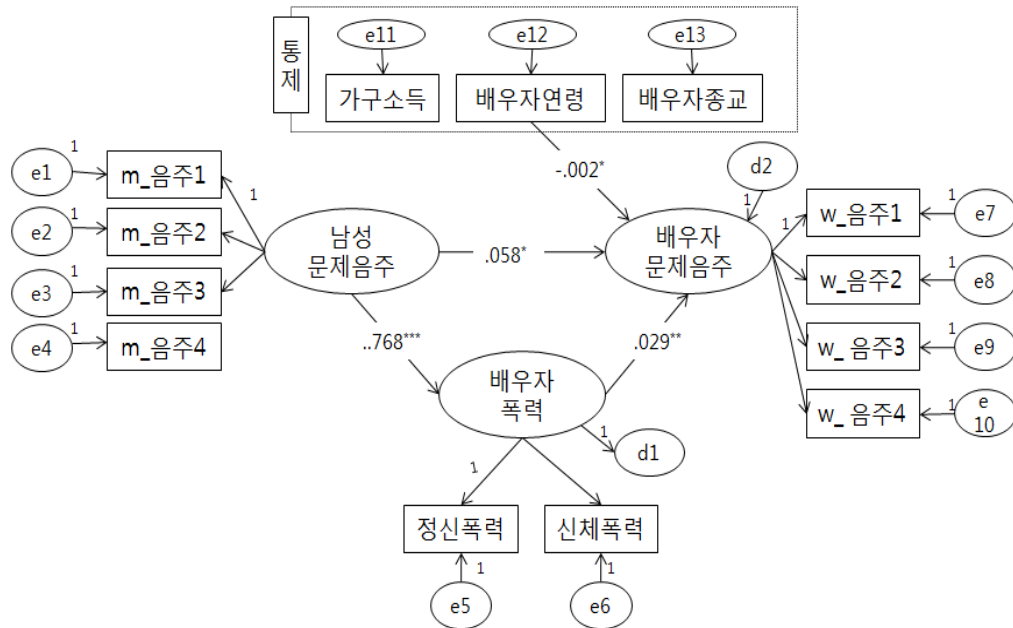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

3) 구조모형 분석

(1) 구조모형 결과

전체집단의 구조모형(<그림 3>, <표 4>)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배우자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영향을 통제하였는데, 이 중 배우자연령은 배우자의 문제음주에 부적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R=-2.282, $p<.05$). 즉 배우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배우자의 문제음주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남성가구의 문제음주와 배우자폭력의 경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성가구의 문제음주가 여성배우자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C.R=2.272, $p<.05$)으로 나타나 남성가구의 문제음주수준이 높을수록 여성배우자의 문제음주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가구의 문제음주가 배우자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C.R=8.151, $p<.001$)으로 나타나 남성가구주의 문제음주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경험한 폭력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우자 폭력이 배우자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C.R값이 3.116($p<.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배우자폭력수준이 높을수록 여성배우자의 문제음주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과 2을 모두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49.025(df=173)$, $p=.000$, $TLI=.943$, $CFI=.973$, $RMSEA=.037$

〈그림 3〉 구조모형의 경로계수와 모형적합도

〈표 4〉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β	S.E	C.R
남성문제음주 → 배우자문제음주	.058*	.104	.026	2.272
남성문제음주 → 배우자폭력	.768***	.261	.094	8.151
배우자폭력 → 배우자문제음주	.029**	.152	.009	3.116
가구소득 → 배우자문제음주	-.015	-.033	.015	-.967
배우자연령 → 배우자문제음주	-.002*	-.079	.001	-2.282
배우자종교 → 배우자문제음주	-.005	-.013	.013	-.382

(2) 매개효과 검증

각 변수간의 영향관계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해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남성가구주의 문제음주가 여성배우자의 문제음주에 직접적인 영향(.104)과 간접적인 영향(.040)을 동시에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가구주의 문제음주는 배우자폭력에 직접적인 영향(.26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폭력은 여성배우자의 문제음주에 직접적인 영향(.152)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Sobel Test를 이용하여 우울의 매개효과를 재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을 지지하였다. 남성가구주의 문제음주는 여성배우자의 문제음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배우자폭력을 매개로 하여 여성배우자의 문제음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폭력은 남성가구주의 문제음주가 여성배우자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구조모형 변수의 효과분해 : 표준화계수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남성문제음주 → 배우자문제음주	.144	.104	.040
남성문제음주 → 배우자폭력	.261	.261	-
배우자폭력 → 배우자문제음주	.152	.152	-

<표 6> Sobel Test 결과요약

경로	간접효과	Sobel Test(Z)
남성 문제음주 → 배우자 폭력 → 배우자 문제음주	.040	2.970**

*P<.05 **P<.01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일반 인구들을 대상으로 성인 남성가구주의 문제음주가 배우자 폭력을 매개로 여성배우자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2006년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총 3,284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가구주의 문제음주수준이 증가할수록 여성배우자의 문제음주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의 문제음주가 친밀한 사람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결과들(장수미, 2008; Wilsnack et al., 1994; Leonard and Das Eiden, 1999; Maffii and Zumbrunn, 2003; Leonard and Muder, 2004)을 지지하는 것이다.

둘째, 남성가구주의 문제음주수준이 증가할수록 배우자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가 가정폭력을 증가시킨다는 많은 선행연구들(장수미, 2007; 권태연·강상경, 2007; Testa and Quigley, 2003; Stith et al., 2004; Zhan et al., 201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남편의 문제음주가 배우자에 대한 공격성의 표출인지 아니면 자신의 문제음주를 폭력에 대한 변명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것은 확인할 수 없으나, 연구결과에 따르면 문제음주가 배우자 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남성가구주의 배우자폭력이 증가할수록 여성배우자의 문제음주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 피해 배우자나 자녀들이 음주문제를 나타낸다는 선행연구결과들(장수미, 2008; 윤명숙·조혜정, 2009; 김진엽 외, 2010; Caetano et al., 2000; Harrison and Willis, 2000; Farrell and Sullivan, 2004; Clark et al., 2006)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배우자 폭력이 피해여성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중단적 효과를 검증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피해여성이 폭력발생을 자신의 책임이라고 대처하는 과정에서의 음주인지 또는 피해자의 문제음주가 배우자의 폭력을 촉진시켰는지 본 연구만으로 폭력피해와 피해자 음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넷째, 남성가구주의 문제음주는 배우자 폭력을 매개로 여성배우자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가구주의 문제음주는 직접적으로 여성배우자의 문제음주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남성가구주의 문제음주수준이 증가할수록 배우자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였고 이는 여성배우자의 문제음주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대상연구인 부모의 문제음주와 자녀의 음주행위관계에서 학대경험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윤명숙과 조혜정의 연구(2009)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과 알코올치료 실천 현장에서 가정폭력과 음주문제의 이중문제에 피해를 경험한 클라이언트를 사정할 때, 폭력문제와 음주문제 모두에 초점을 두고 통합적인 개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가정폭력관련 기관에서는 음주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매우 미흡하다. 마찬가지로 문제음주자 및 알코올중독문제에 개입하는 전국 43개 알코올상담센터나 6개 알코올전문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는 가정폭력의 문제 및 관련 특성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클라이언트 중심의 사회복지실천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과 음주 이중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가해자의 문제음주는 가정폭력과 피해자의 문제음주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 부부치료프로그램 또는 가정폭력 부부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음주와 폭력의 관계를 감소시키고 음주문제와 가정폭력을 통합하여 개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 남편의 문제음주가 배우자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노조절프로그램, 인지행동치료, 의사소통증진 프로그램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가정폭력과 약물중독 영역의 전문가들에게 통합프로그램(Integrated Substance Abuse-Domestic Violence Treatment Approach: SADV)을 보급하고, 특히 인지행동치료에 기반을 둔 부부치료, 집단치료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이러한 SADV 프로그램 실시의 효과는 가정폭력해결 프로그램, 알코올중독개입 프로그램이 각각 실시된 경우보다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 프로그램 수료자들의 음주빈도 및 폭력발생빈도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단주기간을 더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Easton et al., 2007). 문제음주자 및 알코올중독자 가족의 치료과정 참여가 이들 집단의 회복과정(recovering process)에 매우 중요한 결과예측변인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문제음주자 가족들의 특성에 기반한 적극적인 배우자 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나타내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평가할 때, 주로 우울이나 정신건강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문제음주는 거의 다루지 못했다. 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개별치료, 집단치료, 부부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피해자 자신의 문제음주정도를 사정하고 단주(sobriety)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심한 개입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여성 문제음주자들은 자신의 음주문제에 대한 인식이 적으며, 전문적인 도움을 회피하고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모든 가정폭력기관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초기 사정단계에 심리사회적 요인들과 함께 음주수준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전국적인 표본으로 남성가구주의 문제음주가 피해배우자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데, 가정폭력의 매개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했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횡단자료의 한계로 인해 가해자의 음주가 가정폭력과 피해자의 음주에 미치는 시간적인 영향력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없었다. 즉, 각각의 영향성에 대한 종단연구에서 음주가 가정폭력 및 결혼관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검토하지 못했다. 또한 이차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가정폭력의 피해자의 문제음주가 진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인들을 충분히 고찰할 수 없었다. 향후 이러한 변수들을 고찰하는 후속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임상현장에서 남편의 음주 및 폭력이 여성배우자의 음주에 미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양적 연구 이외에도 질적 연구를 통해 폭력과 음주간의 메커니즘을 둘러싼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 권태연 강상경. 2007. “가구주의 음주행태와 심리적 특성이 배우자 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0:223-258.
- 김주현 장수미. 2011. “가정폭력과 음주문제의 동시발생-피해여성의 경험은 무엇인가? -”. 『한국사회복지학』 63(2): 291-317.
- 김재엽 · 이지현 · 송향주 · 한샘. 2010. “아내폭력 피해여성의 위험음주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4): 275-296.
- 보건복지부(2010). 2009년 국민건강영양실태조사 .
- 양난미. 2009. “대학생 문제음주와 데이트 폭력의 관계에서 특성분노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0(4): 2539-2554.
- 여성가족부(2011). 2010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 유채영. 2002. “가정폭력 행위자의 문제음주 변화 동기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의 효과”. 『사회복지연구』 20:85-116.
- 윤명숙. 2010. “우리나라 중독문제현황과 통합적 중독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5: 234-266.

- 윤명숙 조혜정. 2008. “청소년의 폭력경험유형이 우울 및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 가정폭력, 학교폭력, 중복폭력 피해경험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9: 295-329.
- 윤명숙·조혜정. 2009. “부모의 문제음주가 청소년 자녀의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 : 부모애착과 학대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2: 248-284.
- 이현경 노성원. 2011. “우리나라 성인의 문제음주와 우울 및 자살생각과의 연관성”.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2(1): 155-168.
- 장수미. 2007. “가정폭력상담기관과 알코올치료기관 남성클라이언트의 폭력행동 및 음주특성”. 『한국가족복지학』 20: 191-222.
- _____. 2008.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음주문제와 영향요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8: 152-174.
- 장희숙. 2006. “지역사회의 폭력남편과 가정폭력범죄 행위자들의 특성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58(4): 141-168.
- 전경숙·이효영. 2010. “우리나라 남녀 성인의 폭음 및 문제음주 영향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7(1): 91-103.
- 전영실. 2004. “가해자/피해자 음주상태에 따른 폭력범죄 특성”. 『피해자학 연구』 12(2): 307-338.
- 정슬기. 2007. “여자대학생의 문제음주 영향요인 분석-남자대학생과의 비교”.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7: 176-198.
- 조미숙. 2002. “가정폭력 가해자의 알코올중독이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알코올과학회지』 3(1): 102-110.
- 조성민. 2009. “음주문제와 가정폭력 공존문제자의 특성 및 재발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허만세·손지아(2011). “중년기 여성의 문제음주 변화와 자아존중감 변화의 중단적 관계에 대한 빈곤의 효과검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7: 89-116.
- 현진희. 2010. “노인배우자의 음주문제와 폭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1(1): 89-101.
- Bowen, E., E. A. Gilchrist, and A. R. Beech. 2005. “An examination of the impact of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on the offending behavior of male domestic violence offenders and the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recidivism.”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10: 189-209.
- Caetano, R., J. Schafer, C. L. Clark, C. B. Cunradi, and K. Raspberry. 2000. “Intimate partner violence, acculturation, and alcohol consumption among Hispanic coupl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5(1): 30-45.
- Caetano, R., S. Ramisetty-Mikler, P. A. Caetano, and T. R. Harris. 2007. “Acculturation stress, drinking,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among Hispanic couples in the U.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2(11):1431-1447.
- Carbone-Lopez, K., C. Kruttschnitt, and R. Macmillan. 2006. “Pattern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their associations with physical health, psychological distress, and substance use.” *Public Health Reports* 121: 382-392.
- Carlson, B. E., L. McNutt, D. Y. Choi, and I. M. Rose. 2002. “Intimate partner abuse and mental health: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other protective factors.” *Violence Against Women* 8(6): 720-245.

- Clark, A., and D. Foy. 2000. "Trauma exposure and alcohol use in battered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6(1): 37-48.
- Clark, D. B., M. D. De Bellis, K. G. Lynch, J. P. Cornelius, and C. S. Martin. 2003. "Physical and sexual abuse, depression and alcohol use disorders in adolescents: onsets and outcomes." *Drug and Alcohol Dependence* 69: 51-60.
- Cleaver, H., D. Nicholson, S. Tarr, and D. Cleaver. 2007. *Child protection, Domestic Violence and Parental Substance Misuse: Family Experiences and Effective Practice*. London: Jessica Kingsley.
- Cunradi, C. B. 2009. "Intimate partner violence among Hispanic men and women: The role of drinking, neighborhood disorder, and acculturation-related factors." *Violence and Victims* 24: 83-97.
- Easton, C. J., D. L. Mandel, K. A. Hunkele, C. Nich, B. J. Rounsaville, and K. M. Carroll. 2007. "A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or alcohol-dependent domestic violence offenders: An integrated substance abuse-domestic violence treatment approach(SADV)." *The American Journal on Addictions* 16: 24-31.
- Fals-Stewart, W. 2003. "The occurrence of partner physical aggression on days of alcohol consump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 41-52.
- Farrell A. D., and T. N. Sullivan. 2004. "Impact of witnessing violence on growth curves for problem behaviors among early adolescents in urban and rural setting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5): 505-525.
- Field, C. A., R. Caetano, and S. Nelson. 2004. "Alcohol and violence related cognitive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the perpetration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9(4): 249-253.
- Forrester, D., and J. Harwin. 2006. "Parental substance misuse and child care social work: Findings from the first stage of a study of 100 families." *Child and Family Social Work* 11:325-335.
- Galvani, S. 2004. "Responsible disinhibition: Alcohol, men and violence to women." *Addiction Research and Theory* 12: 357-371.
- Graham, K., M. Plant, and M. Plant. 2004. "Alcohol, gender and partner aggression: A general population study of British adults." *Addiction Research and Theory* 12: 373-384.
- Harrison, L., and C. Willis. 2000. "Effects of race and victim drinking on domestic violence attributions." *Sex Roles* 42(11/12): 1043-1057.
- Hirschel, D., I. W. Hutchison, and M. Shaw. 2010.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substance abuse and the likelihood of arrest, conviction, and re-offending in case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25:81-90.
- Kaukinen, C. 2002. "Adolescent victimization and problem drinking." *Violence and Victims* 17(6): 669-689.
- Latendresse, S. J., R. J. Rose, R. Viken, L. Pulkkinen, J. Kaprio, and D. M. Dick. 2008. "Parenting Mechanism in Links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Alcohol Use Behavior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32(2):322-330.
- Leonard, K. E. 2001. "Domestic violence and alcohol: What is known and what do we need to know

- to encourage environmental interventions." *Journal of Substance Use* 6: 235-247.
- Leonard, K. E., and R. Das Eiden. 1999. "Husband's and wife's drinking: Unilateral or bilateral influences among newlyweds in a general population sampl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13(Suppl.):130-138.
- Leonard, K. E., and P. Mudar. 2003. "Peer and partner drinking and the transition to marriage: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selection and influence processe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7: 115-125.
- _____ 2004. "Husbands' influence on wives' drinking: Testing a relationship motivation model in the early years of marriage."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8: 307-406.
- Lin, S. C., C. Y. Su, F. H. Chou, S. P. Chen, J. J. Huang, G. T-E. Wu, W.J.Chen, S. S. Chao, and C. C. Chen. 2009. "Domestic violence recidivism in high-risk Taiwanese offenders after the completion of violence treatment programs." *The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 Psychology* 20(3): 458-472.
- Lipsky, S., R. Caetano, C. A. Field, and G. L. Larkin. 2005. "Psychosocial and substance-use risk factor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Drug and Alcohol Dependence* 78: 39-47.
- Maffli, E., and A. Zumbrunn. 2003. "Alcohol and domestic violence in a sample of incidents reported to the police of Zurich city." *Substance Use and Misuse* 38:881-893.
- Martino, S. C., R. L. Collins, and P. L. Ellickson. 2005. "Cross-lagged relationships between substance use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among a sample of young adult women."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6: 139-148.
- Memurran, M., and E. Gilchrist. 2008. "Anger control and alcohol use: Appropriate interventions for perpetrators of domestic violence." *Psychology, Crime & Laws* 14(2): 107-116.
- Redgrave, G. W., K. L. Swartz, and A. J. Romanoski. 2003. "Alcohol misuse by women." *International Review of Psychiatry* 15: 256-268.
- Ritter J., M. Stewart, C. Bernet, M. Coe, and S. A. Brown. 2002. "Effect of child Exposure to familial alcoholism and family violence on adolescent substance use, conduct problems, and self-esteem."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5(2):113-122.
- Rogers, B., G. McGee, A. Vann, N. Thompson, and O. J. Williams. 2003. "Substance abuse and domestic violence—stories of practitioners that address the co-occurrence among battered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9(5): 590-598.
- Room, R., and I. Rossow. 2001. "The share of violence attributable to drinking." *Journal of Substance Use* 6: 218-228.
- Schuckit, M. A., B. Daeppen, J. E. Tipp, M. Hesselbrock, and K. K. Bucholz. 1998. "The clinical course of alcohol-related problems in alcohol dependent and nonalcohol dependent drinking women and men."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9: 581-590.
- Schumacher, J., W. Fals-Steward, and K. Leonad. 2003. "Domestic violence treatment referrals for men seeking alcohol treatment."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24: 279-283.
- Scott, M. C., and C. J. Easton. 2010. "Racial differences in treatment effect among men in a substance abuse and domestic violence program." *The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36:

357-362.

- Smith, J. W. 2000. "Addiction medicine and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19: 329-338.
- Stewart, W., J. Gordon, and J. A. Schumacher. 2003.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substance use: A longitudinal day-to-day examination." *Addictive Behaviors* 28(9): 1555-1574.
- Strith, S. M., D. B. Smith, C. E. Penn, D. B. Ward, and D. Tritt. 2004. "Intimate partner physical abuse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risk factors: A meta-analytic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0: 65-98.
- Testa, M., and B. M. Quigley. 2003. "Does alcohol make a difference? Within participants comparison of incidents of partner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7: 185-197.
- Testa, M., J. A. Livingston, and K. E. Leonard. 2003. "Women's substance use and experienc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among a community sample." *Addictive Behaviors* 28: 1649-1664.
- Thompson, M., and J. Kingree. 2006. "The roles of victim and perpetrator alcohol use in intimate partner violence outcom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1(2): 163-177.
- Velleman, R., L. Templeton, D. Reuber, M. Klein, and D. Moesgen. 2008. "Domestic abuse experienced by young people living in families with alcohol problems: Results from a cross-European study." *Child Abuse Review* 17: 387-409.
- Widom C. S., and H. R. White . 1997. "Problem behaviors in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grown up: prevalence and co-occurrence of substance abuse, crime and violence." *Criminal Behaviour and Mental Health* 7:287-310
- Wilsnack, S. C., R. W. Wilsnack, and S. Hiller-Sturmhofel. 1994. "How women drink: Epidemiology of women's drinking and problem drinking." *Alcohol Health and Research World* 18(3): 173-183.
- Zhan, W., A. V. Shabolta, R. V. Skochilov, A. P. Kozlov, T. V. Krasnoselskikh, and N. Abdala. 2011. "Alcohol misuse, drinking contests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St. Petersburg, Russia: Results from a cross-sectional study." *BMC Public Health* 11: 629-635.

A Study of Husband's Problem Drinking on the Wife's Problem Drinking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pouse Abuse-

Yoon, Myeong-Sook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 Hye-Chung
(Shingyeong University)

Research has consistently reported a strong association between spouse abuse and problem drinking. The primary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ole of spouse abuse as mediator between the husband's problem and wife's problem drinking. Data from 1st year Korea Welfare Panel were used for the analysis. Subjects in this study consisted of 3,284 male household who aged between 19 years old and 64 years ol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tested by SPSS 18.0, AMOS 18.0.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husband's problem drinking were significantly affected to the wife's problem drinking. Second, there was a strong association between husband's problem drinking and spouse abuse. Third, spouse abuse worked as mediators between the husband's problem and wife's problem drinking. Based upon these findings we suggest to develop an integrated substance abuse-domestic violence treatment program.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and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also proposed.

Key words: problem drinking, spouse abuse, victim's problem drinking, Korea Welfare Panel

[논문 접수일 : 11. 12. 07, 심사일 : 11. 12. 27, 게재 확정일 : 12. 01. 19]